



책의 맛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소식지
제13호 2022년 6월

발행처: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50-23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031-8063-1881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과 같다 - 르네 데카르트

◆ 도서관 이용 안내

- 이용시간

평일 8:40 ~ 1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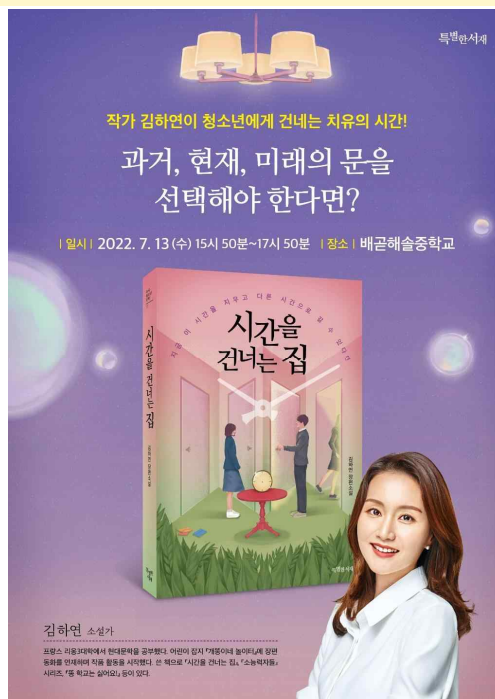
-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 대출 및 반납

2권 30일

※ 거리두기 완화 후 변경 될 수 있음

◆ 7월 <시간을 건너는 집>행사 안내



「시간을 건너는 집」

김하연 / 특별한서재

날짜	7월 6일(수) 15:40~	7월 8일(금) 15:40~	7월 13일(수) 15:40~
일정	독서 확인	사전 독서 토론	작가와의 만남

7월 13일 수요일 「시간을 건너는 집」 김하연 작가와의 만남
이 있습니다. 시간을 건너는 집 도서는 도서관에서 지원해 드
립니다. 작가와의 만남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언제든지 도
서관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기한: 7월 4일(월)

행사장소: 2층 도서관

◆ 과거 현재 미래의 문 선택하기

시간을 건너는 집에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 ① 누구에게도 이 집과 하얀 운동화에 대해 말하지 말 것
 - ②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이 집에 나올 것
 - ③ 미래를 가든 과거로 가든 '죽음'은 바꿀 수 없음
 - ④ 선택의 시간에 문을 선택하는 순간 이 집에 대한 기억은 소멸됨
- 실제로 시간을 건너는 집이 있다면?

<나의 소망>과 과거, 현재, 미래의 문 중에 어떤 문을 선택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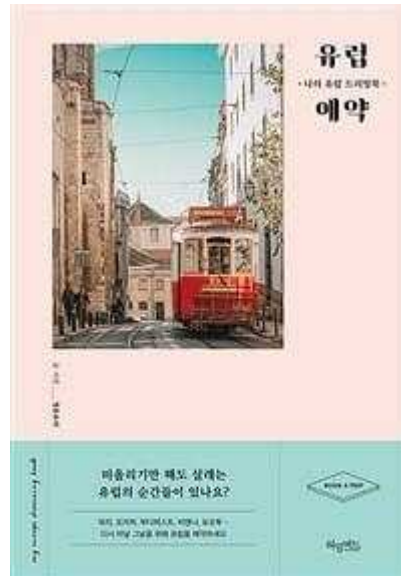
<선택 이유>를 적어보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토론광장에서 만나요~!

행사 기간: 6월 29일(수) ~ 7월 6일(수)

행사 장소: 토론광장





21109 김에원

'유럽예약'은 여행 에세이 작가 청춘유리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 못한 바이러스의 여파로 떠나고 싶어도 여행을 떠날 수 없는 저마다의 그리움, 여행 병을 앓는 사람들을 위한 유럽 드리밍 북이다.

여행을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유럽여행에 대한 로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럽의 풍경, 환경 등을 사랑하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로망을 품은 적이 없던 사람에게도 추천하고픈 에세이이다. 이 에세이에 들어진 사진과 글들은 유럽의 로망과 감성을 자극한다. 그리고 작가가 유럽에게 느끼고 대하는 감정들도 오묘하게 전달된다.

사진 하나하나가 감각적이고 감성을 불러일으켜 묘하게 빠져들게 만드는 사진들, 그리고 세계를 여행 다닌 작가의 감정, 그 나라의 문화와 풍경, 그곳에서 있었던 일까지도 내가 마치 유럽에 와있는 듯한 생생한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휴식과 위로가 필요할 때, 여행을 가고 싶을 때 한 번쯤 꺼내 들어 보면 정말 큰 위로와 휴식,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단순 여행 에세이가 아닌, 드리밍 북이다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책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 현재 가장 가고 싶은 유럽의 도시, 그곳에 있다 상상하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이 등장하고 여행에서 관람한 전시회, 영화 같은 티켓을 붙일 수 있는 곳, 여행의 기억을 떠올리며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도 존재한다. 이렇게 독자가 직접 작성하고 상상하고 떠올리며 뭔가 정말 내가 여행 계획을 세우는 기분이 들어 설레이게 만든다.

나도 이 책을 읽으며 여행을 좋아해도, 로망이 없었던 사람인데도 여행에 대한 로망이 생겨났다. 정말 이 책만의 감성들이 녹아들 여가 있어 큰 위로를 전해 받는 기분이라 진심으로 추천하고픈 책이다.

<여름 바람>

30909 김희주

며칠 전부터 그 애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그 애와 눈이 마주칠 때면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휙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항상 멀리서 바라만 봤다. 저만치서 그 애를 보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다. 눈이 크고, 운동을 잘하고, 유쾌하고... 짝사랑인가 싶어도 심장은 평소같이 고요하달까, 내가 상상하던 그런 감정은 아니었다.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느낌도, 심장이 쿵, 쿵, 요동치는 느낌도 없었다.

가끔은 일부러 그 애 얼굴을 쳐다보기도 했다. 수업 시간마다 수업은 듣지도 않고 그 애만 바라보았다. 그 애는 수업을 꽤 열심히 들었다. 선생님 얼굴이 뚫릴 것 같았다. 잠시 한눈을 팔다가 다시금 바라보면, 자고 있기도 했다. 쉬는 시간 종이 쳐도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 반 아이들이 다 체육 수업을 들으러 나갈 때면, 자고 있는 그 애의 동그란 머리를 뺀히 쳐다보기도 했다. 선선하고도 끈적한 여름 바람이 괜히 마음을 간질였다.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짝사랑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드디어 내 친구가 사랑이란 걸 한다니 뭐라나... 영양가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 연애의 'ㅇ'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근데 짝사랑하는 감정이 이런 거야? 싱숭생숭하고... 뭐랄까, 확실하지가 않아. 머리를 헝클이며 말하자 내 친구는 아직 어려서 그래, 짝사랑 맞아. 하고 답했다. 자기도 나랑 동갑이면서 어른인 척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정말 내가 어린 걸까, 고민하기도 했다.

반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다. 놀러 가는 날에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것들 골라 입었다. 엄마는 남자친구라도 생겼냐며 웃으셨다. 웬지 모르게 부끄러워서 서둘러 집을 나왔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그 애만 있고 다른 아이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했다. 작게 인사하니 그 애도 안녕. 하고 대답해주었다. 그 후엔 애들이 올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하릴없이 휴대폰 화면을 만져댔다. 그래도 애들이 하나둘씩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서 분위기도 점점 밝아졌다. 문득 단둘이서 놀 때에도 어색하면 어찌지, 하며 생각하다가 뜨거워지는 얼굴에 손부채질을 했다. 내리쬐는 햇볕이 다가왔다.

학교에서 그 애의 곁을 맴도는 때가 많아졌다. 그러면 가끔 그 애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다. 일부러 다른 친구들과 노는 척, 그 애 주변으로 가기도 했다. 반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어도, 다른 애와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 애 목소리는 뚜렷하게 들려왔다. 이번에는 그 애와 친해지기 위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확실히 전보다는 친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시험 기간이었다. 겨우 친해졌는데, 놀지는 못한다니. 좀 더 일찍 다가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눈 깜짝할 새에 1학기가 지나갔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축 처져 있던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신나게 돌아다녔다. 그리고 정신없이 놀다 보니 벌써 방학이었다. 방학 중에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다. SNS를 보면 그 애는 친한 애들이 많은 듯했다. 3학년에 처음 만난 내가, 그 애 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갑자기 우울해졌다. 그 애를 좋아하는 날 보며 이따금씩 스스로를 깎아내렸다. 짝사랑을 하면 할수록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방학 초에는 간간이 오가던 연락이 중반쯤 되어서 잠잠해졌다. 가는 게 없으니 오는 것도 없는 게 당연한 것이다. 평소에 먼저 연락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건 그 애한테도 마찬가지였다. 침대에 누워 내리쬐는 햇살을 맞으며,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간 느껴온 감정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었다고 정의했다. 나는 정말 변덕스러운 사람 같다고 느꼈다. 앞으로 그 애와는 친구로 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렇게 짧고 짙었던 감정들이 여름 바람을 타고 내 곁을 떠나갔다.

내 심장을 찌라 / 정유정 / 은행나무

31201 이정은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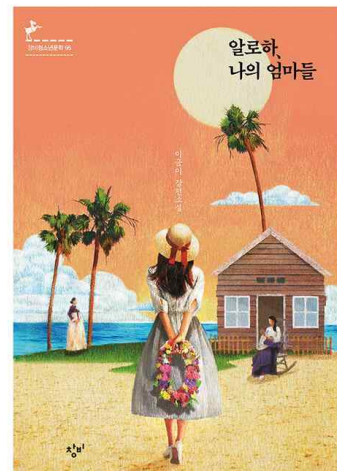


이 책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인공에 시점에서 우리는 이 책에 두 번째 주인공을 관찰하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어느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을 가지게 된 25살에 이수명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은 대기업 회장의 혼외자이자 패러글라이딩 선수였던 마찬가지로 25살에 류승민입니다. 이 둘은 각자에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됩니다.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그쳐 조용히 보내고 싶은 수명에게는 정신병원을 나가기 위해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 승민이는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수명이는 점점 그런 승민이에게 관심이 생기게 되고 왜 그가 이곳을 나가고 싶어하는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두 남자의 자유에 대한 열망과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는 이 책을 올 6월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 / 이금이 / 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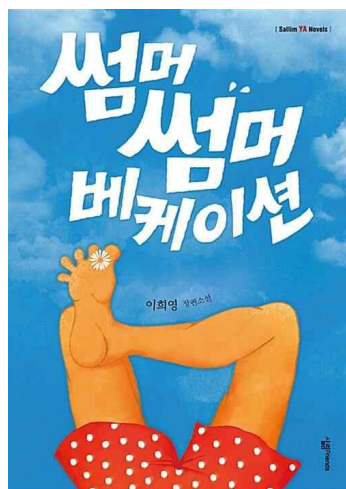
31415 신아정 추천

이 책은 일제강점기 당시 '여성의 지위'와 '조선의 독립운동', '사진결혼'을 주제로 이루어진 장편소설입니다. 작품을 이끌어가는 서술자는 버들이지만 사실상 버들, 송화, 홍주 세 명의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세 여성은 각각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을 해결해준다면 포와(히와이)로 희망과 기대를 안고 떠납니다. 포와는 생각보다 좋은 곳이 아니고 이 소설의 서술자 버들의 남편은 죽은 전 애인을 잊지 못하여서 버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버들이 혼자 힘든 소설인가 싶은 순간 서로를 알아가면서 오해가 풀리고 본격적으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소설은 1917년으로 시작하여 년도별 발생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어, 역사를 좋아하거나 역사에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썸머 썸머 베케이션 / 이희영 / 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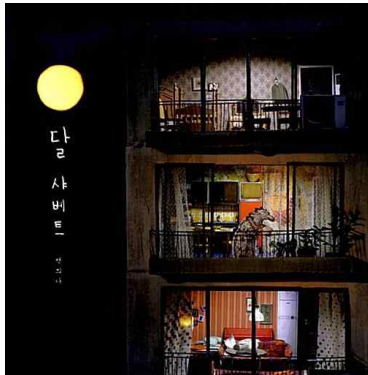
10723 조은서 추천



한 시골 소년 이하준이 맞이하는 열여덟 살의 여름 방학. 하준이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는 학교 쿼카 예빈, 하지만 정작 하준이는 까칠하고 도도한 예빈이가 썸 마음에 들지는 않고... 학교에 새로 전학오게 될 독서 소녀 서연, 우연히 하준이와 마주쳤으나... 뭐야? 왜 두근거려 하는 거냐고 이하준...! 그렇게 여름방학이 어찌어찌 순탄하게 흘러가려나 하던 찰나, 하준이가 사는 마을을 배경으로 찍은 드라마가 대박이 나서 마을 내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이 하는 과일가게, 생선가게 등의 영업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과연 하준, 예빈, 서연 이 셋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마을에 찾아온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학생 시절의 풋풋한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책, 곧 다가오는 여름 방학에 상큼하면서 씩씩한 맛을 느껴보세요!

달 샤베트 / 백희나 / 책 읽는 곰

21217 심예은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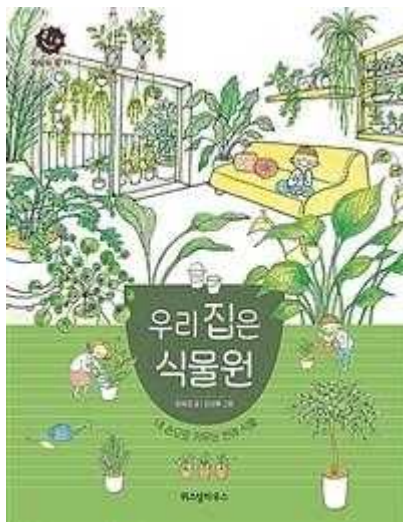


열대야에 힘들어하던 어느 아파트. 달도 더워 때문인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반장 할머니만이 녹는 달을 보고서 떨어지는 달을 대야에 받아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정전까지 나버린 아파트. 유일하게 반장 할머니의 집만 환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녹아내린 달로 만들어둔 달 샤베트를 꺼내옵니다. 달 샤베트는 아주아주 시원하고 달콤해서 사람들이 더위를 잊을 수 있게 만들어주었죠. 사람들은 시원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달이 녹아버려서 집을 잃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달에 살던 달토끼들은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어버린겁니다. 그런 토끼들을 위해 할머니가 화분에 남은 달을 부어 달맞이 꽃을 피워냅니다. 다행히 달맞이꽃이 피니 달도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죠. 반장 할머니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편안한 잠에 빠져듭니다. 한여름밤의 꿈같은, 우리도 달 샤베트를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환상같은 이야기. 곧 다가올 본격적인 여름에 한 번쯤은 읽어볼만한 동화책. 지금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 과학 독서 감상문!

<우리 집은 식물원을 읽고>

10621 이채은



내가 본 책은 우리 집은 식물원이라는 식물에 관한 지식이 담겨있는 책이다. 식물의 구조와 기능, 식물을 키우면 좋은 점, 뿌리와 잎, 식물 배치 등등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내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식물을 키우면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이유였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장 먼저 식물이 먼지를 먹는 것은 식물을 만들어내는 음이온은 미세먼지나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 같은 양이온을 만난다면 음과 양이 달라붙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제거된다고 한다.

또 식물은 식물의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숨구멍이 있으므로 해가 떠있는 낮시간동안 기공을 통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뿜어낸다고 한다.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며, 식물이 산소를 뿜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니 우리 생활에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놀랍고 나도 반려동물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물을 키우고 싶는데 어떻게 키울지 모를 때 자세하게 과학적 지식들이 들어가있는 우리 집은 식물원이라는 책을 모두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다.

다음 소식지도 기대해주세요~!